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현황 및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조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8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8기 훈련팀에서 2009년 7월 2일 ~ 2009년 8월 22일까지 수도권과 조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함경북도의 지역현황 및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목 차

I. 조사설계

II. 들어가는 말

III. 함경북도 지역의 일반현황

1. 일반개요
2. 정치분야
3. 사회분야
4. 경제분야
5. 생활분야
6. 문화분야
7. 위생보건분야
8. 교육분야
9. 종교분야
10. 기독교 상황

IV.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현재 이슈들

V. 함경북도 지역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2. 함경북도 지역 선교의 방해요소
3. 함경북도 지역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4. 함경북도 지역 선교전략 제언

VI. 나가는 말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함경북도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 최북단 지구로서 선교적으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지금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있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땅이지만 통일과 함께 함경북도의 복음화가 실현 된다면 북한 복음화는 물론, 접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아울러 세계 선교의 가속화 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한 교회와 선교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함경북도에 관련된 정보들은 많지 않으며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그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한에는 새터민, 혹은 북한 사역자 등 북한의 현황과 실상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 예비된 통로로 북한에서도 지리적 요충지인 함경북도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한다면 지금은 닫혀있는 북한이지만 점진적으로 효율적인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팀은 북한 선교에서의 정보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실제적인 북한 선교전략을 세우고자 북한에서도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함경북도에 대한 지역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조사팀은 닫힌 땅으로만 보이는 북한을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중보자들을 더 많이 세울 목적을 가지고 속히 북한이 억압과 고통에서 풀려나기 원하며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의 목적

- 1) 함경북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부재를 인지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함경북도 현황에 대해 파악한다.
- 2) 함경북도 지역 현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도출하고 함경북도 지역의 복음화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3) 북한선교 관심자와 선교사들에게 함경북도 지역의 현황과 실질적인 복음화 전략을 알리고 동원하며 함경북도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운다.

3. 조사지역

1) 국내 (수도권², 포항 한동대학교)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 사역기관들³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가정

한동대학교 새터민 학생

2) 조-중 접경지역⁴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延吉), 왕청(汪淸), 도문(陶文), 훈춘(琿春)

중국 요녕성(遼寧省) 단둥(丹東)

4. 현장조사기간: 2009년 7월2일~ 2009년 7월 22일⁵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7/02- 2009/07/06	국내 (분당, 용인)	전문가 2명	인터뷰
		새터민 2명	인터뷰
2009/07/07- 2009/07/22	조-중 접경지역 (연길, 왕청, 도문, 춘흥, 훈춘, 단둥)	선교사 7명	인터뷰
		전문가 4명	인터뷰

5. 조사인원

²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중 70%정도가 함경북도 출신이며 그들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조사하기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는 북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과 단체들이 많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과 조사가 가능하였다.

³ PN4N(The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Mission), 영락교회, 인동교회를 방문하였다.

⁴ 중국 길림성 연길, 훈춘과 같은 조-중 접경지역 도시들은 북한과의 근접성으로 북한 사역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족과 한국 기업인들이 많아 언어 소통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⁵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9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동안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 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 간의 현장조사, 10일 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 4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주충성	전산전자공학부(06)	디렉터, 예배부부장
2	김진형	글로벌리더십학부(09)	미디어부장
3	홍초롱	글로벌리더십학부(09)	문서자료부장
4	강인애	글로벌리더십학부(09)	총무부장

6.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부 교육원, www.uniedu.go.kr

조선 일보 북한, www.nkchosun.com

두리 하나 선교회, www.durihana.com

위키 백과사전, www.ko.wikipedia.kr

좋은 벗들, www.goodfriends.or.kr

통일 학교, www.uniedu.go.kr/school/calendar/calendar

기독교 북한인 연합회, www.nkca.net

② 문헌조사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4)

『대 백과사전 1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고장이름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데이브, 수스, 『무너지는 장벽』, (홍성사, 2009)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3)

(2) 일반인 인터뷰

새터민 4명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연길교회, 훈춘특수학교, 단동복지병원

(2) 전문가 인터뷰

① 국내

오성훈 목사님(PN4N⁶)

나평안 전도사

L 전도사(새터민)

② 조중 접경지역

연길 거주 사역자 3명

훈춘 거주 사역자 1명

단동 거주 사역자 7명

7. 조사 성과와 한계점

그 동안 NKFR은 북한과 관련된 주제리서치 위주로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팀은 처음으로 북한 지역리서치를 시도하였으며 직접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나 간접적으로 북한 지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함경북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10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아울러 그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조사팀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함경북도 관련 자료가 10년 전의 것이라는 낙후성과 정확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의 함경북도 현황을 조사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근 2009년 7월에 함경북도를 직접 다녀오신 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함경북도의 현황에 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여러 명의 함경북도 출신 새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와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생한 함경북도 지역 자료를

⁶ 'PN4N'은 The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Mission의 줄임 말로, 북한을 위한 전세계적 중보기도 단체다. 서울신학대학교 북한선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오성훈 목사의 제안으로 2001년 3월부터 시작돼 국내외 동포들과 현지인이 기도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기도 네트워크'다. (방문일: 2009년 7월 5일)

보고서 형태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국내에서 인터뷰한 새터민 5명이 함경북도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는 못하는 표본의 문제가 있다. 물론 함경북도에 거주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새터민 주민도 있었지만 정치, 경제는 문외한 새터민도 있었다. 또한 조-중 접경지역에서 인터뷰한 선교사 11명 중 함경북도를 직접 방문하고 온 선교사는 3명으로 소수에 해당하였다. 함경북도에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조-중 접경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만난 탈북민 이야기와 사역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는 있었으나 함경북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나머지 3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인터뷰와 더불어 여러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했으며 이를 통해 보고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I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햇볕 정책의 열매이며 남북 협력의 마지막 고리인 개성공단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15일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정한 법규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 왔다. 또한 핵 실험에 이어 대포동 2호 발사 시험과 계속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한반도 서해 해상에서는 언제 무력대결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 가운데 있다. 2008년 하반기에는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북한체제의 붕괴 설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기도 하였다. 한국 교회 앞에는 북한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에 발생하게 될 위기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신속히 북한 복음화를 이룩해야 할 전략적 과업이 놓여 있다. 다가 오는 통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한국 정부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현재 내부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며 인권문제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은 1907년 평양 대 부흥을 기점으로 남한 보다 기독교인 수가 훨씬 많았었다. 하지만 광복이후 북한의 기독교인 수는 김일성의 친소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6·25전쟁 이후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기독교는 거의 말살 되었다. 하지만 생명력 있는 복음의 그루터기는 아직도 북한 땅에 숨쉬고 있으며 옛 교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사역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약 3,4년의 기간 동안 3백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아사 사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고는 배고픔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다. 김정일 독재체제의 계속되는 억압과 횡포로 주민들을 탄압하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복음화는 선교적 차원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역이며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와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우리의 자그마한 기도와 헌신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본 조사팀이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함경북도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포동 1호, 2호 발사가 진행된 발사장이 위치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 사역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멀리

않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세대로서의 소명감을 자각하고 효과적인 북한 선교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사팀은 이번 리서치를 통하여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들과 관심자들에게 함경북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와 적극적인 선교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함경북도 내부 실정에 맞는 선교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III. 함경북도 지역의 일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에는 6도, 9시, 89군, 810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3년 12월에는 3직할시, 9도, 25시, 31구역, 145군, 2구, 2지구, 145읍, 3,230리, 1,136동, 267노동자구의 행정구역으로 다시 개편하였다.⁷

함경북도는 북한의 9개 행정구역도 중의 하나이다. 함경북도 도 소재지는 청진시이며 면적은 2만 345km², 인구는 208만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⁸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에 접한 지역은 비교적 평야를 이루고 있다. 동쪽은 조선 동해(북한 식 표기법)에 닿아 있고 북쪽은 러시아, 북서쪽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한민족으로 한국어를 쓰고 있으며 함경북도 특유의 방언이 통용된다.



〈그림 Ⅲ-1〉 함경북도 지도

2) 행정구역 구조

1896년에 성진(지도에는 김책시로 표시 됨) 이북지역이 함경북도가 되고 경성을 도 소재지로 삼았다. 광복 전 함경북도는 11개 군과 4개 읍, 72개 면, 783개 리로 구성되었다가 광복 후인 1950년에는 3개 시(청진시, 나진시, 성진 시)와 12개 군, 72개 면, 765개 리로 구성됐다. 이 후에도 함경북도는 학성군을 김책군으로, 성진 시를 김책시로 바꾸는 등 변화를 보이다가 나진-선봉시가 경제특구로 직할시가 되면서 함경북도에서 분

⁷ 『대 백과사전 1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21~2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및 북한의 신문·방송 종합

⁸ 두산 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함경북도 (검색일: 2009년 6월 25일)

리 되었으며 결국 현재에는 3개시, 12개 군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다.⁹⁾

3) 인구

함경북도의 인구는 1943년 127만 7,967명에서 1992년 208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추정 되는 바가 없다. 북한은 6. 25전쟁 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 까지 지속적인 인구 증가추이를 보여 인위적인 저 출산을 강요할 정도였지만 1990년 대 중엽부터 수 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하자 다시 다 출산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1993년경 인구 통계가 진행된 후 15년 넘게 인구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 정확한 자료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유엔 인구조사단에서 14만 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해 10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인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새로운 인구 통계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¹⁰⁾

4) 지리

함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의 높이는 500m 정도이다. 북동-남서방향으로 함경북도를 가로지르는 함경산줄기(길이 340km, 평균높이 1,360m, 최고높이 2,540m)가 있으며 이 산줄기에는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 다음가는 관모봉(2,540m)이 있다. 그 외에도 2,000m가 넘는 산들이 많다. 함경산줄기를 경계로 북서쪽은 물매가 느린 고원(백무고원)지대¹¹⁾가 펼쳐지며 동쪽에는 물매가 급한 복잡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산지들은 점차 낮아지면서 바다로 이어진다. 함경북도의 북동부 두만강유역은 낮은 산과 언덕지대로 되었으며 남부 바닷가지대에는 칠보산지¹²⁾가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식량 사정의 악화로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무는 뿌리 채 뽑아 땔감으로 사용하는 등 산림 도벌이 심각한 수준이다.

어랑천¹³⁾과 화성천 하류 연안에는 200~300m 정도의 높이를 가지는 넓고 평탄한

⁹⁾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함경북도의 8.15광복 이후 (검색일: 2009년 6월25일)

¹⁰⁾ 서울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北 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 (기사보도날짜: 2008.5.13)

¹¹⁾ 양강도 동부와 함경북도 북서부 일대에 펼쳐진 고원면적 6,520km², 평균높이 1,260m로 우리나라에서 개마고원 다음으로 넓은 고원이다. 백두산의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서두수의 서쪽 지역을 백두고원이라 하고, 동쪽 지역을 무산고원이라 한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백무고원 (검색일: 2009년 6월 26일)

¹²⁾ 함북 명천군 남부에 솟아 있는 용암대지. 두산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칠보산지 (검색일: 2009년 6월 26일)

¹³⁾ 함북 남부를 흐르는 강으로서 함경산맥에 딸린 관모봉의 남쪽에 연봉을 이루는 깨산봉이 발원지이다. 하구 가까이에서는 비옥한 어랑평야를 발달시켜, 쌀 외에 보리 · 밀 · 수수 · 옥수수 · 콩 등의 농산물을 많이 산출한다. 하구 가까이에는 한반도의 자연호 중에서 가장 큰 장연호를 비롯하여 무계호 등이 있다. 이 무계호와 어랑천의 중류에 있는 삼포온천은 관광휴양지이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덕땅¹⁴들이 있다. 비교적 넓은 덕은 화성군의 장덕, 어랑군의 봉강덕이다. 주요별은 두만강 하류연안에 펼쳐진 두만강 어구별(120), 남대천(길주)하류연안의 길주별(100), 어랑천 하류연안의 어랑별 그리고 림명별, 화대별이다.

함경북도의 하천을 살펴보면 흐름길이의 70%정도가 함경북도의 북부 변두리를 따라 흐르는 두만강과 이 하천에 흘러 드는 서두수, 연면수, 회령천, 오룡천, 동해에 흘러 드는 어랑천, 길주 나대천, 화대천, 림명천 등 하천들이 있다. 이 하천들은 농업용수, 관개용수, 뗏목 길에 사용된다. 김책, 길주 지방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효과 있게 쓰이는 송홍 온천, 세천 온천, 온수평온천이, 은덕군에는 청학약수가 있다.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로우며 바다에는 대초도, 소초도, 알섬, 양도 등 섬들이 있다.

5) 기후

지형상 해안지대와 내륙지방의 기온 차가 크다. 해안지대는 동해안에 접해 있고 배후의 산지가 한랭한 북서계절풍을 막아 주어 겨울에는 내륙지방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내륙지방은 대륙에 접해 있고 주변의 높은 산지 때문에 겨울에 몹시 춥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강수량이 매우 적은 한랭 소우 지역이다. 연평균기온 7~8℃, 1월 평균기온 -10~-14℃, 8월 평균기온 20~22℃이다. 연평균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500~700mm이고 칠보산 동쪽 해안지방은 900mm이다.

함경북도의 기온은 내륙고원지대와 해안지방 그리고 두만강 중·하류지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내륙고원지대는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기후가 나타나며 계절풍이 부는 게 특징이다. 해안지방은 동해 연안을 흐르는 한류의 영향을 받으며 두만강¹⁵ 하류유역 고원지대의 연평균기온은 5.7℃ 내외이며 해안지방은 북부가 7℃, 남부는 8℃ 정도이다. 함경북도의 1월 평균기온은 바닷가 지방이 -5.1~-10℃, 내륙지방이 -10~-16℃이다. 1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지방은 김책(-5.1℃), 가장 낮은 지방은 연사(-16℃)이다. 함경북도의 8월 평균기온은 해안 및 두만강 유역이 24℃, 무산, 회령, 단천을 잇는 내륙지방이 28℃이다.

강수량은 한반도의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해안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연평균강수량은 600 mm 내외이고, 두만강 중상류 지역은 500 mm 내외이다. 봄·가을철에는 북한한류와 동한난류의 교류로 짙은 안개가 끼어 어업과 해상교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¹⁶

검색어: 어랑천 (검색일: 2009년 6월 26일)

¹⁴ 북한어휘: 둘레의 지형보다 높으면서 평평한 땅.

¹⁵ 백두산 남동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나진선봉직할시 선봉군 우암리에서 동해로 흐르는 강, 두산 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두만강 (검색일: 2009년 6월 26일)

¹⁶ 두산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함경북도의 기후 (검색일: 2009년 6월 26일)

6) 역사(함경북도의 연혁)

함경북도는 고조선 시대 예맥이라는 부족의 통치로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함경북도 지역이 완전히 한민족에게 복속된 시기는 고려 말, 조선 초였다. 북진 전략에 힘쓴 결과 1441년(세종 23) 김종서는 종성, 온성, 회령, 경원(새별), 경흥, 부령 등 두만강 북변에 6진을 완성하여 함경도민과 그 밖의 충청·강원·경상·전라도의 민호를 모집하여 함경도로 이주시켰다. 1404년(태종 4)에는 고려 성종 이래의 지역명인 삭방도를 영길 도로 고치고 도병마사를 두었으며, 1407년(태종 7)에는 다시 함길도라 개칭하였고, 1509년(중종 4)에는 함경도로 개칭하여 관찰사를 임명, 치소를 함흥에 두었다. 함경북도라는 명칭은 1896년(건양 1) 전국의 8도를 13도로 개편, 함경남·북도로 분할하고 함북의 도청소재지를 경성부로 정하면서부터 불리게 되었다.¹⁷

7) 요약

함경북도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조선 시대에는 버려진 땅으로, 유배지로 여겨지던 곳이지만 통일 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동부 철도가 있어 러시아와 유럽 나라들과의 연계라든가 중국과의 무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2. 정치분야

1) 개요¹⁸

북한의 현 김정일 정권은 이미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정치 이념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허울마저 벗어 버리고 군부독재가 확립된 군국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군국주의 군부독재의 공통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북한의 실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체제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수 백만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의 희생쯤은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가볍게 명명하고 외부세계와의 대결만을 필수적 사명으로 부르짖으며 계속적인 군부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지도부는 김일성 주의, 김일성 민족에 배경을 둔 우리민족 제일주의, 주체사상

¹⁷ 두산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함경북도의 연혁 (검색일: 2009 년 6 월 26 일)

¹⁸ 참조: 전문자료 “북한의 정치”

을 정치 이념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유지를 위한 폐쇄정책만을 주장한다. 당연히 국가의 자존심과 외부의 원조를 거대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노동자들의 기본권보다는 독재 체제 유지가 훨씬 우선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 무기 개발은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일개 도구일 뿐이다.

2) 정치 구조

함경북도 내 권력구조는 김정일의 “선군 정치”에 따라 사실상 군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의 조선 로동당은 북한 체제의 수뇌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함경북도당위원회는 도의 전체 당, 행정, 인민정권 기관들에 직접적인 지도력을 미치고 있다. 함경북도의 최고 행정부서는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이다. 도 인민위원회는 도 인민주권기관으로서 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업무와 생산, 소비, 교육, 문화 등의 활동을 규제한다.

이 외에도 조선 여성 동맹 함경북도 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농업근로자 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직업 총 동맹 함경북도위원회,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함경북도 위원회가 있다. 함경북도 도당위원회와 인민정권 기관일군들의 임기는 4년이다. 함경북도에서는 5천 명당 1명 비중으로 도 대의원이 선거되며 이들의 임기도 4년이다. 도 인민위원회는 한국의 도의원과 같은 개념이다.¹⁹

3) 행정 구조 및 주요 도시

함경북도는 청진시를 도 소재지로 하여 3개시 12개 군으로 구성되었다. 시와 군은 다시 동과 리로 나뉘어 진다. 함경북도에는 청진시, 회령시, 김책시, 온성군, 섯별군, 은덕군, 무산군, 부령군, 연사군, 경성군, 어랑군, 명간군(화성군), 명천군, 길주군, 화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요약

함경북도 정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절대적인 통치아래 있다. 함경북도의 주권 기관들 중 중요 부서들은 도급 기관소속이 아니고 평양 직속기관들이다. 중요 부서들은 도 기관 일군들이나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여 평양에 직접 보고한다. 만약 김일성, 김

¹⁹ 본 항목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주모 씨와 2009년 7월 30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정일 부자에 대하여 자그마한 정치적 불평이나 비난을 하면 평양으로부터 직접 엄중한 처벌²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대 권력 구조도 도내 식량 배급이 끊기면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도내 주민들이 일군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노력동원을 해도 오지 않는 형편이다. 결국 권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핵심 도구였던 식량 배급이 사라지면서 절대 권력도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다.²¹

3. 사회분야

1) 개요

해방 후 김일성은 독재정치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던 노동자와 머슴, 빈농을 핵심계층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였다. 원래 사회주의란 계급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인데 김일성은 인위적으로 계급을 구분하여 정치에 이용한 것이다. 주민들의 성분을 따라서 현재 북한 주민들은 법적으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개 계층과 51개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에 기인하여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 선택이라든가 간부 등용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며 자기가 속한 계층에 순종을 요구한다.

핵심계층은 북한의 28%을 차지하며 노동자, 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 유가족, 애국 열사 유가족, 광복이후 양성된 인텔리, 전사자 가족, 후방 가족, 영예 군인 등이 포함되고 당, 정, 군 간부등용에 대우를 받는다. 동요계층은 북한의 45%을 차지하며 중소 중상인, 수공업인, 소 공장주, 하층집객업자, 중산층 집객업자,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 귀환 등이 포함되고 각종 하급 간부 및 기술사조로 진출한다. 적대 계층은 북한의 27%을 차지하며 광복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 친미주의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등이 속하고 유해 중노동에 종사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구분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고위관료 층을 제외하면 모두 어려운 생활수준에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형태다.²²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사회계층 구조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상위 계층과 기본 계층, 노동자 농민이 따로 없이 돈이 많으면 계급을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적대 계층의 자녀로 분류되어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평양으로 이주하는

²⁰ 엄중한 처벌이란 사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뜻한다.

²¹ 본 항목은 조선족 A선교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²² 두산 백과사전 En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북한의 계층구조(검색일 2009년 6월 30일)

데 성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계층별 사회생활

함경북도의 제1계층인 핵심계층은 주택 공급이나 물자 공급이 평양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특별히 구분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쉽게 진학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이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더 이상의 호화 생활은 담보 되지 않는다.

도내 기본 군중은 대부분 하급기관 간부나 공장, 기업소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김일성 부자에게 열심히 충성하면 상위계층으로 승진하기도 한다. 기본 군중에는 농민들도 속한다. 농민의 자녀들은 도시나 공장으로의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아버지가 농민이면 그 자녀도 평생 농민으로 살아야 한다. 여자인 경우에는 도시의 남자와 결혼하여 도시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남자들은 평생 농민으로 살아야 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농민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농장으로 직종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다시 공장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일명 복잡군중이라고도 불리는 불순적대 계층 사람들은 함경북도 북부 산악지대의 탄광, 광산 등의 험한 곳에 배치되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며 특히 김일성 부자를 반대하였던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불순 적대 계층에는 김일성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나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잡힌 국군 포로들을 비롯한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함경북도 은덕군에 있는 아오지 탄광이나 온성군 상하 탄광과 같은 험한 곳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적대 계층의 일부는 일반 주민들과 격리되어 회령 22호 정치범 수용소나 청진 25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생활하고 있다.

3) 함경북도의 치안 및 유지 상태

(1) 방범 사법기관

함경북도에는 청진시 포항구역에 위치한 도안전국을 중심으로 매 시마다 시안전부²³, 구역마다 구역 안전부, 군마다 군 안전부들이 있으며 동이나 리에는 분주소가 있다. 또한 반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한 보위기관들이 있다. 청진시 청암구역에도 보위부가 있으며 시 보위부, 구역 보위부, 군 보위부가 해당 지역마다 있다. 또한 도내 공장 기업소뿐만 아니라 전문학교나 대학교들에는 담당 주재원, 담당 보위지도원이 항시 상주

²³ 안전부: 현재는 보안서로 불리고 있으며 한국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보안기관이다.

해 있으면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간첩 행위를 대비한다.

(2) 범죄사건

1990년대 아사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도내 범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식량 사정이 극심해지자 도 양정 사업소²⁴ 식량창고나 주민 집을 상대로 한 도적 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협동농장의 소를 도축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북한 법에 따라 협동농장에서 소는 설비로 등록되어 있는데 결국 소를 잡아 먹은 몇몇 사람들은 국가 설비 파괴 죄로 기소되어 사형당하기도 하였다.

식량을 해결하기 도내 여성들 중에서는 쌀 몇 킬로그램을 받고 몸을 파는 불륜 범죄행위들도 벌어졌다. 주로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진역이나 룡반역과 같은 큰 역전에서 많이 일어났다. 기차가 연착되면 사람들은 기차에서 몇 일씩 혹은 몇 주일씩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가난한 여성들은 몸을 팔게 된다.

청진시 수남 장마당과 같은 장마당들에서는 일명 꽃제비²⁵라 불리는 청소년들이 장사꾼들의 음식을 훔쳐 먹거나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소매치기도 극성이다.

또한 군인으로 가장하고 식량 창고를 털어내거나 심지어는 인육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말, 몹쓸 병에 걸린 청진시 라남구역에 사는 주민이 어린아이를 죽이고 내장을 먹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식량이 없어 사람을 죽여 돼지고기라고 속이면서 인육을 장마당에 내다 파는 특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²⁶

(3) 범죄 대처 방법 및 능력

함경북도 치안 당국은 도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행위들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들을 잡아 가두고 죄의 엄중성에 따라 사형과 심지어 교수형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도 하지만 범죄는 끊임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살인 행위나 협동농장 소를 도축한 범죄자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90년대 기아 사태로 인하여 중국으로 탈북한 자들은 노동단련대로 보내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자가 많아 도 당국은 한국 선교사를 만나 성경을 읽었거나 소지한 사람, 한국행을 시도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형이나 감옥형을 판결한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에서 살아 남으려면 탈북하거나 도적질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지이다. 결국 경제해결의 출로가 없는 한

²⁴ 양정 사업소: 배급을 나눠주기 위해 식량을 보관하는 도급 기관

²⁵ 꽃제비: 러시아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추론도 있지만 한국말 거지에 해당된다.

²⁶ 본 항목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탈북자 이모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4) 정치적 탄압시설

(1)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명칭은 정확하지 않다. 북한 당국은 “***호 관리소”라고 하고 있고 주민들 속에서는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 수용소” 등으로 불리고 있다. 혹은 “종파 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외부 세계로부터 위장하기 위해 “조선인민군경비대 제 ****부대”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다.²⁷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여 생활하게 된다.

정치범 수용소는 그 죄의 무게에 따라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구역으로 나뉘어 진다. “혁명화 구역”은 유학생, 외교관, 불법 도강 및 탈북 미수자, 북송 교포가족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사상 변질 자들을 수감대상으로 하고 있다.

“완전 통제구역”에는 죄질이 중한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그들은 무기교화형을 선고 받게 된다. “완전 통제구역”은 출소가 불가능하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4중, 5중의 경비망이 수용소를 지키고 있다. 함경북도에는 함경북도의 온성군, 회령시, 화성군, 부령군, 청진시에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령 제 22호 정치범수용소”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서 이미 해산된 “종성 제 13호 정치범 수용소”, “온성 제 12호 정치범 수용소”와 함께 1950년대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 제 16호 정치범 관리소”는 북한 내에서 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1급 정치범 수용소이다. 북쪽으로는 어랑 군, 동남쪽으로는 명천 군에 이르기까지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다.

청진시 수성 동 송곡 골짜기에 있는 “수성 제 25호 정치범 교화소”는 현재 정치범 교화소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정치범 수용소 외에도 수많은 탄압 시설들이 있다. 함경북도 은덕군 북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6.13일 탄전”은 유명한 “아오지 탄전”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출처: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3/2009062301317.html

〈그림 Ⅲ-2〉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

²⁷ 『북한 인권 백서 2008년』 p458 ~ 461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된 곳이며 해방 후에는 북한의 정치범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 보위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노동 교화소

북한에서 교화소는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구금하고 그들을 교화 시키는 관리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 교화소에는 주로 경제범들이 수감되며 형기 동안 이들은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과 사상투쟁, 사상 교양을 거치게 되며 형기가 끝나면 석방된다.²⁸ 함경북도에는 회령시에 노동 교화소가 있다.²⁹

(3) 노동 교양소

교양소는 법 규범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범죄자들을 집단적으로 구속하고 노동 시키는 곳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 교양소”이며 단순 폭행, 경제 사범, 절도범, 명예 훼손 등으로 2년 미만의 형기를 받은 사람들이 수감되며 “노동 교화소” 보다는 형량이 가볍고 “노동 단련 대” 보다는 형량이 무거운 “비 사회주의 범죄자”들이 수감된다. 재판 없이 인민 보안성의 권위에 따라 즉결 수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1995년 기아 사태에 이은 탈북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탈북자 전용 노동 교양 소가 설립되었다는 증언도 있다.³⁰

(4) 노동 단련대

북한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단련대”라는 또 다른 법적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노동 단련대는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면에서 보면 노동 교화소나 노동 교양소와 비슷하지만 형량이 가벼운 사람들이 주로 수감된다. 수감 기간은 15일 ~ 6개월 사이이며 공식 명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노동 단련대”이다. 노동 단련 대에 수감되는 경범죄자들은 사실상 재판도 없이 끌려와 강제 노동에 동원되게 된다.³¹

5) 꽃제비 구호소

함경북도 위원회는 아사사태가 심각해지자 여러 개의 꽃제비 수용소를 건립하여 일명 꽃제비라고 불리는 부모 잃고, 집 없는 어린이들을 돌보았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

²⁸ 국회 도서관, “북한의 집단 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29 ~ 30

²⁹ 함경북도 회령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³⁰ 국회 도서관, “북한의 집단 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36

³¹ 국회 도서관, “북한의 집단 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p46

들과 따로 학교교육을 받다가 17살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도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동원된다. 이들에게 차려지는 식사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도 내 주권기관들을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에 이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군에 동원된 사람들은 의무병역으로 10년을 복무하고 경우에 따라 30살까지 복무하기도 한다. 군 복무 후에는 청년돌격대로 선발되어 광산 개발이나 발전소 건설 장과 같은 힘든 곳들에 배치된다. 그 중 뛰어난 자들만 몇 명 뽑아서 데려가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경우를 겪게 된다.

6) 요약

함경북도의 사회계층 구조는 북한 어디서나 공통적인 현황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함경북도는 옛 조선 시대부터 유배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핵심계층은 평양으로 이동하고 불순 계층들은 주로 함경북도로 이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과 공업지구들이 건설되어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불순계층들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도 함경북도만의 특성과 관련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경제분야

1) 개요³²

6·25전쟁 이후 북한 정부는 중공업 우선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 발전 방침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으로 청산리정신³³과 대안의 사업체계³⁴를 내세웠다. 또한 북한정부는 사회주의경제 원리 노선에서 소유제도를 사적 소유³⁵, 협동적 소유³⁶, 전 국가적 소유³⁷(인

³² 조선일보 NK조선, www.dailynk.co.kr, 통일교실-숙제자료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³³ 청산리 정신: 관리자가 군중 위에 군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어가는 정신이다.

³⁴ 대안의 사업체계: 지배인 유일관리제로부터 당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로의 이전을 기본핵심으로 하고 있다.

³⁵ 개인적 소비를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을 이르는 말이다.

³⁶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농장, 기업소 등을 나타낸다

³⁷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여행 등을 국가가 소유하여 생산활동을 조직 지휘하며 그에 의하여 생산되는 이윤은 전체 인민이 함께 필요에 따라 소유하도록 하는 공산주의적 소유관계이다.

민적 소유)로 나누었다.

이러한 경제 원리 안에서 북한의 경제는 1950년 후반이 되었을 때, 전쟁 전의 3배 가량의 경제 성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개인적 소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무시한 나머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획경제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을 기점으로 전반적 경제 불황이 계속되자 김정일은 2002년 7월 가격 및 임금의 대폭인상, 노동생산성 향상, 배급제 개선,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성 확대, 사회 보장체계 개편 등을 목적으로 한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경제 관리개선조치효과는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생산의욕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인 면이 더 심각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2008년 북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 회생 능력을 이미 상실한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없다.

2) 도내 주요공업지구

함경북도 내 공업지구를 본다면 크게 청진 공업지구와 김책 공업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⁸ 청진공업지구는 함경북도 청진시를 중심으로 나진·선봉직할시, 부령군, 온성군, 회령시를 포괄하는 북한 8대 공업기구의 하나이다.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공업이 발달했고, 공업 원료로는 무산광산의 철광석, 청진 부운 광산의 니켈, 함북 북부탄전지대의 무연탄, 갈탄이 있다. 에너지 공급원으로는 서두수발전소(42만 Kw), 청진화력발전소(15만 Kw), 부령발전소(3.6만 Kw), 허천강 수력발전소(39.4만 Kw)가 있으며 공업용수 공급지로는 서두수와 수성천³⁹이 있다. 청진, 나진, 선봉에는 이 공업지역의 원료 및 제품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구들이 있다.

김책 공업지구는 함경북도 김책시를 중심으로 북으로 길주군, 남으로 함경남도 단천시를 포함하는 임해공업지대⁴⁰이다. 기계, 금속, 화학, 선박, 제강, 제련, 내화물⁴¹, 펄프, 제지, 합판 등의 중화학공업이 중심이다. 김책시에는 성진 제강소 외에 조선소, 선박수리공장, 전기공장, 성진 내화물공장 등의 기계, 금속, 선박 공업이 활성화 되어있다. 단천시에는 검덕 광산과 마그네시아 공장, 시멘트 공장, 제련소 등의 비철금속 공업, 길주에서는 펄프, 합판, 제지 공장 등 목재 관련 공업을 위주로 한다. 목재 관련 공업은 랑

³⁸ 두산 백과사전 cyber, www.encyber.com, 검색어: 청진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 (검색일 2009년 6월 24일)

³⁹ 수성천: 길이 67.4m의 함북 회령, 청진 구조곡을 남류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 함경산맥의 차유산, 삼지봉, 민사봉 등을 발원하여 동류하다가 창평 부근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쪽 차유령에서 동류해 온 지류와 무릉에서 합류, 고무산, 부령, 수성을 거쳐 청진만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⁴⁰ 임해공업지대: 해안을 따라 입지하는 공업지대이다.

⁴¹ 내화물: 고온에 견디는 물질로, 적어도 1,000℃ 이상 고온에서 연화(軟化)하지 않고 그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며, 화학적 작용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이다.

강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며 공업용수는 단천의 남대천 및 북대천과 길주의 남대천 등으로부터, 전력은 허천강 발전소와 김책 화력발전소에서 공급된다. 공업지구는 평라선, 단풍선, 함남선, 백두산청년선 철도와 육로 및 해로로 연결된다.

3) 공업

(1) 금속공업

청진시·김책시를 중심으로 주철 210만t, 강철 240만t, 열압연 강철 267만t, 냉압연 강철 40만t을 생산하는 북한 최대의 종합제철소인 김책제철소와 청진제강소·부령야금공장이 있다.

(2) 기계공업

채탄기, 광차, 권양기, 굴진기 등을 생산하는 회령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하여 청진공작기계공장, 나남탄광기계공장, 청진컨테이너공장, 청진방직기계공장, 청진 텔레비전 공장, 청진조선소, 청진철도차량공장, 회령방직기계공장 등이 있다.

(3) 화학공업

청진, 은덕, 화성, 나진, 길주 등지로 메탄올, 화학비료, 합성수지, 펄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청진에는 연간 생산능력 3만 5,000t으로 북한의 2대 인견사공장인 청진화학섬유공장이 있다.

(4) 건재공업

내화벽돌을 생산하는 성진내화물공장, 유선내화물공장이 있으며, 그밖에 고무산 시멘트 공장, 길주합판공장, 김책대리석공장이 있다.

(5) 방직공업

라남방직, 어랑방직, 길주직조, 청진직물, 등이 있으며, 식품공업으로는 청진수산물가공공장, 김책 수산물 가공공장, 회령 곡산공장 등이 있다.

(6) 전력공업

시설용량 20만kVA의 웅기화력발전소, 15만kVA의 청진화력발전소, 5만kVA의 김책화력발전소와 서두수 수력발전소, 부령수력발전소 등이 있다.

(7) 광물 자원

함경북도에서는 철을 비롯하여 각종 광물이 다양하게 채굴된다. 함경북도 탄전은 평안남도 안주탄전과 함께 북한 최대의 유연탄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석탄은 함북북부탄전의 6월13일 탄전⁴²과 고건원, 오봉, 상화, 주원, 은성, 신유선, 궁심, 학포, 풍인 탄광이 있고 함북남부탄전으로는 고참, 양정, 일신, 학동, 화성, 탄광 등이 있다. 철광석은 북한 최대의 철 광산으로 알려진 무산광산에서 연간 수백만 톤의 자철 정광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진시와 청진시 일대의 부운, 삼해, 부령 광산에서는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 청진시와 명천군에는 망간 광산, 크롬 광산, 몰리브덴 광산이 자리잡고 있다. 청진시의 고무산 광산과 회령시의 중도광산에서는 석회석이 채굴되고 있으며, 경성군의 생기령 광산에서는 고령토가 생산된다. 그 밖에 김책시에서는 흑연, 대리석, 인회석, 길주군에서는 운모 등 비철금속광물들이 채굴되고 있다.

4) 농업 및 기타 산업

함경북도는 산이 많고 기후조건이 농업에 불리하여 식량작물 생산보다는 축산, 과수, 양잠 등이 활발하다.⁴³ 경제면적은 도 전체면적⁴⁴의 10% 미만이며, 그 가운데 논이 18%, 밭이 71%, 과수원이 9%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쌀, 옥수수, 콩, 감자, 담배 등이다. 쌀은 연사 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생산되며, 특히 어랑 군, 길주군 등 남부지역에서는 도 전체 쌀 생산량의 67%를 생산하고 있다. 옥수수는 밭의 비율이 높은 북부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그밖에 감자는 연사군, 마늘은 김책시, 쪽파는 어랑 군이 주요 재배지역이며, 담배는 회령시, 온성군, 새별군, 화성군, 명천군, 길주군에서 많이 생산된다. 특히 회령시의 잎담배가 유명하며, 회령시와 무산군에서는 사탕무를 재배하기도 한다. 또한 화성군, 길주군, 회령시 등에 대규모 과수단지를 중심으로 배, 사과, 살구, 복숭아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회령 백살구 과수단지는 북한 최대의 살구단지로 알려져 있다.

5) 축산업

함경북도는 축산업이 기후의 영향으로 비교적 활발하여 두만강 유역과 화대 군에서 양과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선봉군, 새별군에는 젖소목장, 오리목장, 돼지사육장 등이 있다.

⁴² 함경북도 은덕군 북쪽의 충덕산(495m)기슭에 있는 탄전. 8.15해방 전까지는 아오지 탄전이라 불렀다.

⁴³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www.britannica.co.kr, 검색어: 함경북도의 산업과 경제 (검색일: 2009년 6월 24일)

⁴⁴ 함경북도의 전체면적은 2만 345 km²이다.

6) 수산업

수산업은 선봉, 나진, 청진, 어대진, 김책, 화대, 명천 등 16개의 수산사업소를 중심으로 명태, 청어, 송어, 대구, 정어리, 멸치, 임연수, 낙지, 문어, 해삼, 성게 등이 많이 잡히고 있으며, 김책시는 원양어선을 가진 수산기지이다. 그 밖에도 나진만, 경성만, 조산만 등에는 다시마, 미역, 조개 등을 양식하는 천해양식장이 있으며, 선봉군의 서변포, 동변포, 만포, 흑지와 어랑군의 장연호, 무계호 등에는 담수어 양식장이 있다.

7) 산림업

함경북도는 양강도와 자강도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함경산맥의 북서부지역에서 원목생산이 활발하며, 연사, 유선, 마양, 부령에는 임산사업소가 있고 경성, 화성, 회령 등에는 갱목⁴⁵ 생산사업소가 있다.

8) 함경북도의 경제 실태

함경북도는 현재 청진 김책제철소의 가동 중단과 함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미 모든 기업소 설비들이 노후를 맞았고 노동자들은 식량난으로 더 이상 국영 기업소에 종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몇 안 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장을 힘들게 재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 팔려고 해도 지도부의 허락이 나기까지 수속 부서가 수없이 많아 아예 다 포기하고 공장 생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몇 해 전부터는 노동자들이 공장 기업소의 설비를 뜯어 팔아먹는 일들도 벌어졌다. 도내 농촌마을의 실정도 마찬가지이다. 농민들에게 분배⁴⁶ 되어야 할 식량들이 도내 고위 간부들과 군부로 빼돌려지고 있어 농민들은 봄철 농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식량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농민들은 봄철이 되면 협동농장 일보다는 자기 터 밭 관리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로 장사하러 가거나 심지어 조-중 국경 지구 농민들은 중국으로 도강(탈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많은 외화벌이 기관들이 생겨 도내 수산 자원과 광물자원을 채취하여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거래 품목은 식량을 위주로 하는 것이

⁴⁵ 갱목: 광산*토목공사 등 지하작업에서 사용하는 목재로 좁은 의미로는 통나무 목재와 각목재 등의 기둥재목만을 뜻한다.

⁴⁶ 분배: 1년 농사가 끝나면 협동농장 위원회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1년 분 식량을 뜻하는데 1인당 200Kg ~ 400Kg 정도로 추정된다.

일반적이다.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유입하여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형식의 시민 경제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건물 사이마다, 골목 마다 장마당이 생겨나고 품종에 관계 없이 전부 거래가 가능하며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도 팔고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들도 있으며 때로는 한국산 제품들도 판매된다. 한국산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도 내 공장 기업소들이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거래 되는 물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도 내 주민들이 수공업으로 만든 것들이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산 옷 제품을 고아원이나 유치원에 보내주면 입지 않고 다시 장마당에 팔아 쌀을 사먹기도 한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물품들은 결국 시민 경제의 유통을 보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물론 도 기관들이 자본주의 상업 행위 단속 정책으로 적지 않은 제재를 가하지만 지하경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거에 따르면 무산광산의 철광석도 중국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정부의 2002년 7·1경제개선조치가 시행된 이후 함경북도 주민들의 지하경제에는 엄청난 혼란이 조성되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10~20배 된 반면 전체적인 국가 지정 물품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상향조종 되어 도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1Kg에 8전 하던 입쌀 가격이 40원으로 무려 400배 가까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 안에서도 북한돈의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신뢰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달러나 엔화, 중국 인민폐가 대대적으로 유통되었다. 즉 외화를 가지지 못한 최하층 주민들은 더욱 더 극심한 경제 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본 리서치 팀이 인터뷰한 새터민 주모 씨는 2002년 도내 주민들의 지하경제가 발달되어 주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국가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또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지금도 북한화폐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져 도 내 주민들의 경제는 날마다 악화되어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⁴⁷

9) 요약

함경북도에는 청진 김책제철소와 같은 대형 공장 기업소들이 많지만 국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정책으로 더 이상 도내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는 생산을 멈추어 고물 더미로 변해버렸다. 게다가 7·1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현실과 거리가 먼 경제 정책이 수립되어 주민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2008년부터는 1990년대 말엽에 벌어진 아사사태이상의 아사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과 자선단체,

⁴⁷ 조선족 김모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국제적 자선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평양위주의 물자공급보다는 함경북도와 같은 소외된 지방을 먼저 공급하는 지원 정책들과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생활분야

1) 개요

1980년대까지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다. 1950년대 6·25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산업시설들이 파괴 되었지만 김일성은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의 발전에 치중하여 의식주 생활에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생활방식을 벗어 버리고 점차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적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을 옷 조차 없던 주민들은 중국이나 일본,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족한 물품들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수입산 가공음식제품들이 장마당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 되었고 옷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업품도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공급하는 것 외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북한 주민들이 점차 외국 문물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화려한 삶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이 시점부터 주민들의 옷 문화와 살림주택문화는 현저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상표가 붙은 옷들을 그대로 입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났다.

2) 의생활

함경북도의 의복형태는 특별히 북한 내의 의복과 다르지 않다. 계급 별로 작업복, 고급 옷 등이 있다. 특히 1990년 대 말부터 의복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기아 사태가 조금씩 개선되고 중국산 제품들이 함경북도 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부터 주민들의 옷차림은 발전하였다. 국가가 규제하는 옷차림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한 천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입기도 하며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서 수입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북한 정부는 이러한 옷들을 자본주의적 사상잔재로 보고 단속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별로 구애 받지 않고 즐겨 입는다. 또한 20 ~ 40대 사람들은 군복을 즐겨 입기도 한다.

3) 식생활

1995년부터 함경북도 농촌에 비료와 전기 에너지 공급이 거의 중단되면서 농업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농경지는 버려지고 농민들은 협동농장 일에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함경북도는 북한 지역에서 식량 사정이 가장 열악한 지방 중의 하나이다. 농사철이 되어도 농민들은 식량 사정의 어려움으로 협동농장 일보다는 개인 소 토지⁴⁸ 관리에 집중한다.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은데다 군량미와 각종 조세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청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의 식량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요임과 배급표를 받아 해당 배급소에서 배급표에 제정된 양의 식량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배급제도는 1995년 이후로는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도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농민 시장이나 농촌에 있는 친척을 통하여 보충하였는데 농촌에서조차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대 초 약 60만 명이던 청진시 인구가 2006년에 들어서 32만 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도내 도시들에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조사팀은 새터민, 조-중 접경지역의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1990년 대 당시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새터민과의 인터뷰 내용 중

“청진시 수남장마당⁴⁹과 나북장마당을 오가면서 밀가루 장사를 했어요. 밀가루 1kg 당 1.2원의 이윤을 냈는데 하루에 200~300kg 팔면 200원~300원 벌어요. 미 공급⁵⁰ 전에는 기본 노임 36원, 도급 붙으면 60~70원 대학 나오면 70원, 지배인 100원 정도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과 강도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얼마나 많다고. 셀 수도 없어. 장마당 가서 밀가루 파는데 하루는 꽃제비들이 와서 다 덮쳐 가져가는 거야. 북한에는 여우, 송냥이만 남고 노루 사슴 토끼⁵¹는 다 죽어버렸어. 먹고 살자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하도 굶어버리니까 인육사태 일어나고 잡아먹고 그러다 잡혀가니까 동맥 끊어서 죽어버리고(자살). 내가 96년도 때쯤 매일 시체를 두 개 이상 봤어. 매일. 매일 관을 계속 싣고 다닌다는 거지. 빈 관이 가든 사람 시신이 담긴 관이든 어쨌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유엔이나 미국, 한국, 일본이 아무리 많이 도와줬다고 해도 우린

⁴⁸ 소 토지는 북한 정부가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개인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 해준 수 십 ~ 수백 평정도의 크기를 가진 개인 소유 토지이다.

⁴⁹ 수남 장마당은 청진시 수남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함경북도 내 최대의 장마당이다.

⁵⁰ 도내 주민들은 1990년대 식량 위기를 “미 공급시기” 라고 부른다.

⁵¹ 노루, 사슴, 토끼는 너무나 착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여우와 송냥이는 꾀 있고 도둑질 잘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중국의 강냉이는 많이 먹어봐도 한국 쌀, 미국 쌀, 전혀 구경도 못하고 그랬어요.”

조·중 접경지역 사역자와 인터뷰 중

“함경북도 사람들은 강냉이도 없어서 못 먹고 동물 먹는 사료를 먹고 있어요. 주민들의 소원은 강냉이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은 것이지. 식사로는 가끔씩 국수를 먹기도.. 하지만 좋은 국수가 아니라 끊어지고 눌러 붙고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퍼먹을 정도지.”

다른 곳에서 인터뷰한 사역자 분 역시 도내 주민들에게 배급(식량 공급)이 사실상 없고 기본적으로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고아들은 우선순위에 밀려 더욱 영양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다.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 인민군 제 9군단 병사들의 식량 공급 상황도 열악하다. 유엔 기구나 국제 사회가 지원하는 식량은 일반 주민들 보다 도내 군부대들에 먼저 공급되지만 여전히 군인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1990년대에 출생한 군인들의 평균 키는 160Cm정도 이다. 이는 미군 178Cm, 한국군 173Cm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9군단에서는 사단 군의 소마다 허약자 병동을 따로 설립하여 영양 실조나 허약한 군인들을 따로 돌보고 있다.⁵²



〈그림 Ⅲ-3〉 함경북도의 조선인민군 제 9군단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5년 북한이 심한 홍수를 겪고 나서,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자원을 요청하면서부터이다. 이 후로 2007년까지 우리나라와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양의 식량이 북한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핵실험과 대포 동 2호 발사를 비롯하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조사팀 인터뷰를 통하여 함경북도 식량 사정은 최악의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시급한 식량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4) 주거 생활

⁵² 본 내용은 함경북도 청진에 살던 탈북민 주모 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도내 아파트는 주로 청진시와 같은 큰 도시들에 많이 건설되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된 이유는 도 소재지라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도시나 군들에 비해 공장, 기업소가 많아 노동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청진시 송평구역 봉천동에는 청진 김책제철소 노동자들을 위한 15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새터민 이00씨와의 인터뷰 결과 엘리베이터가 없어 15층에 사는 주민들은 15층까지 걸어 다녔고 1990년 대 들어서면서 온수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은 주방에서 석탄을 때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1990년 대에 들어서면서 제철소 생산이 줄어들고 식량난이 겹치면서 주민들은 아파트를 버리고 꽃제비가 되거나 굶어 죽어 1990년대 말, 2000년 대 초에는 아파트마다 3층 이상의 층들은 사람이 살지 않아 텅 빈 상태로 방치되었다.

청진시에서 온 김 군은 자기가 살다 온 곳인 봉천동은 아파트였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부암동은 흙토집이었다고 말했다. 흙토집이란 단독주택의 대부분의 형태로서 진흙과 벼 짚을 섞어 만든 것인데 매우 취약하다. 농촌 지역들의 주거 시설은 19세기 조선 시대를 방불케 한다. 읍내 거리에만 2 ~ 3층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나머지 주민 주택가에는 대부분 토피집⁵³들이 들어서 있다. 여름철 장마 비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온성군에서 온 탈북자 이모 양도 흙토집에서 살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정도이며 주변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벽돌로 만든 농장 주택이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

최근 대도시의 주택 사정은 다른 기초 생활필수품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졌다. 당장 시급한 식량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각 직장이나 협동 농장에서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⁵⁵ 청진시에 살고 있는 도 급 기관 간부들이나 외화 벌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다. 특히 간부 계층은 아파트 30평 정도되는 주택에 만족하지 못해 옆집에 사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돈을 주어 이주 시키고 그 집까지 차지하여 두 집을 합쳐 개인 주택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⁵⁶

5) 생활시설

함경북도는 도시 가스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정집들에서의 취사연료는 대부분 구

⁵³ 토피집은 흙토집의 또 다른 표현이다.

⁵⁴ 본 내용은 탈북민 김모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⁵⁵ 본 내용은 통일 교육원, www.uniedu.go.kr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⁵⁶ 본 내용은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던 탈북민 주모 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명탄(연탄), 갈탄, 나무, 농작 폐기물, 일진(가루로 된 석탄)등을 사용한다. 도시 설계를 할 때부터 도시 가스화는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함경북도뿐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청진과 같은 도시들의 고층 아파트들에서는 석유나 가스 연료,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기도 한다. 지방 아파트나 연립 주택⁵⁷의 경우에는 아예 온수 관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물은 시간제로 사용하는데, 전기와 수도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 전이나 단수가 될 때가 많다.⁵⁸ 주민들은 온돌 석을 바닥에 깔고 나무 장작이나 석탄 불을 피워 방을 덥힌다.

에너지 사정이 열악하여 주민들은 밤이 되면 일찍이 잠자리에 든다. 공장, 기업소가 많은 도시들에는 전기가 공급되어 주민 주택에도 시간제로 전기가 공급된다. 청진시에는 제철소와 같은 대형 공장들이 많아 주민 주택들에도 전기가 조금씩 공급된다. 하지만 농촌 주택들에는 봄철이나 가을철 탈곡 할 때 외에는 전기가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 겨울철이 되면 수력 자원이 부족하여 전기 사정은 더욱 열악해 진다.

전기가 없으니 수원지에서는 주민들에게 수도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주민들은 물이 나오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가 다 물통을 들고 산 기슭 샘물을 찾아 나선다. 일부 주민들은 물이 안 나오면 물을 큰 물통에 담아 잘 사는 사람들이나 간부 집들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농촌에서는 물이 없어 강물이나 펌프(수동펌프)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⁵⁹

6) 도로 교통망

함경북도는 청진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와 같은 대규모 공업지구들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 교통망이 잘 구성되어 있으나 산악 지대가 많아 특별한 고속도로가 없다. 거의 모든 도로는 비포장 도로이며 도로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많은 곳이 파헤쳐져 운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준다.

함경북도 철도 교통은 1914년부터 15년에 걸쳐 진행된 함경선의 개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함경 서부선(청진~회령~남양), 함경동부선(선봉~남양),



나진 항 출처: 한국 민족문화 대 백과

〈그림 Ⅲ-4〉 나진항의 모습

⁵⁷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하모니카 주택이라고도 불리는데 10채 이상의 집들이 한 줄로 나열되어 건설되어 있는 모양이다.

⁵⁸ 본 내용은 통일 교육원, www.uniedu.go.kr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⁵⁹ 본 내용은 함경북도에 살던 탈북민 주모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청진선(청진~수성), 백무선(백암~무산), 무산선(무산~고무산) 등의 산업철도가 연이어 개통되었다. 내륙지방의 지하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함경북도 지역의 인구밀도도 높아졌으며 많은 산간 미개척 지역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⁶⁰ 현재 도 내 주요 철도는 평라선(평양~나진), 원라선(원산~라진), 함북선(청진~회령~라진), 백두산청년선(길주~혜산), 백무선(무산~백암)등이 있고 남양·삼봉 역에서는 중국과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평양~두만강 행 기차는 평양에서 함경북도 북단까지 운행되며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도내 임산물, 철광석, 석탄 등 광물 자원수송을 위한 무산선이 청진과 연결되어 있다.

주요 항구로는 김책, 나진, 선봉항이 있다.⁶¹ 함경북도 해운은 191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1910년 전에는 내륙의 수로인 두만강과 중국을 오가는 정도의 작은 나룻배가 고작이었고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새별), 경흥 등의 촌락에 주요 나루터가 있었다. 함경북도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청진, 나진~선봉, 성진 등의 동해 지방들에 주요 항구들이 건설되었으며 물자수송, 여행, 군사 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함경북도 도로는 철길을 따라, 혹은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었다. 광복 전에는 우마차 도로 정도의 폭이 좁은 험로였으나 그 뒤 확장되어 자동차 교통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도 내 주요 도로는 청진 공업지구를 위한 청진~회령, 청진~무산, 청진~라진 사이 도로가 있다. 또한 김책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무산, 혜산 사이 2급 도로⁶², 원산(강원도)~라진(함경북도)간선도로가 있으며 원산~라진 사이 간선도로는 홍남공업지구, 청진공업지구와도 연결되어 있다. 동해안 도로는 성진, 길주, 명천, 어대진, 청진, 나진, 선봉을 연결한다. 이 도로는 국도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함경북도 도로사정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청진이나 경성과 같은 비교적 큰 도시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된 도로가 있지만 외진 곳은 여전히 흙으로 된 길이다.

도 내 주요 교통수단을 보면 자가용 승용차나 화물 자동차는 거의 없고 도보와 자전거가 보통 인민들의 주요 운송수단이자 교통수단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자전거나 손수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등짐으로 짐을 져 나르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내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목탄차⁶³가 등장하기도 했다. 도시와 지방 농촌으로 이동 할 때에는 시내 버스를 이용한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도 내에는 개인이 운행하는 서비차⁶⁴가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주민들은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 많이 이용한다.

⁶⁰ SK communication,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참고하였다.

⁶¹ 네이버, www.naver.com을 참고하였다.

⁶² 2급 도로는 비 포장 도로를 의미한다.

⁶³ 목탄차: 목탄, 참나무나 목재를 태워 발생하는 가스를 원료로 하여 운행된다.

⁶⁴ 서비차: 개인이 해당 국가기관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돈을 받아 운행하는데 비교적 이용이 쉽다.

7) 요약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경제난으로 함경북도는 북한의 다른 도들보다 먼저 식량공급이 끊겼다고 할 수 있다. 청진시에서 온 최모씨도 1994년, 1995년 김일성 국가주석이 사망하는 기점으로 배급이 끊어지고, 전기와 물까지 끊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한다. 청진시에서 온 새터민 김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도내 에너지 사정이 악화되어 1995년 후에는 주택 공급용 전기가 끊겨 등잔불과 촛불로 생활하였고,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너무 가난하여 죽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과 탈북자가 대대적으로 발생하여 빈집이 제일 많이 생겨났다고 증언하였다. 함경북도는 평양에서 지리적으로도 제일 먼 곳에 위치한 부속 도서로서 국가적 지원이 다른 도에 비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는 산악이 대부분이라 농작물 수확량이 저조하며 대부분 공업위주의 산업이 형성되어 있어 북한경제 전반이 파탄 되면서 1차적인 생활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은 함경북도는 제일 먼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대까지 국영 상점들이 잘 운영되어 주민들은 필요한 옷들을 주로 도내 국영 상점을 통하여 싼 값에 구매하거나 북한 정부에 의하여 옷을 배급의 한 형태로 공장, 기업소를 통해 공급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내 거의 모든 국영 기업소들이 생산을 중단으로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의 옷 공급은 사라져 버렸다. 학생 교복도 2년에 한번 정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생일에 선물로 공급되었으나 그것마저도 공급되지 않아 장마당을 통하여 사서 입거나 천을 사서 새롭게 만들어 입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계층과 신분제에 따라 독립가옥이나 연립 주택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공급 받아 사용하게 된다. 중간 간부급 이상의 주민은 방 2, 3칸을 지닌 아파트를 공급받으며, 일반 주민은 방 1, 2칸까지 연립주택을, 농민은 보통 방 1, 2칸짜리 단독 주택을 공급 받는다.

6. 문화분야

1) 개요

함경북도의 문화는 북한의 문화와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문화예술을 살펴보면 북한의 문화는 김일성의 항일 혁명 문학 예술의 전통에 철저히 입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화는 순수 문화로서의 의미보다 문학을 통하여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건설에 한 사람 같이 일어서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문화

예술의 운용 시스템은 창작과 비평, 보급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건축, 교예(서커스) 등 북한의 각 문화예술장르의 원칙은 현실을 혁명적 발전단계에서 서술하고 민족적 형식에 맞게 구성되어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전문 문인, 예술가들을 일정한 조직 안에 참여시키고 창작 방향을 제시하며, 창작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열과정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며, 공장, 기업소, 농장 관리위원회나 학교 등 국가 관리 기구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한다.

2) 명절

북한은 국가적 명절과 민속명절 모두를 명절로 부르고 있다. 민속명절에는 추석(음력 8월 15일), 설날, 음력 설, 단오(음력 5월 5일) 등이 있으며 국가적 명절에는 김일성 생일(태양절⁶⁵, 4월 15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정숙 생일(12월 24일), 국제 노동자 절(5월 1일), 조국광복의 날(8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9월 9일), 조선노동당창건 기념일(10월 10일), 사회주의헌법 절(12월 27일) 등이 있다. 그리고 1996년에 조선인민군창건일과 전승기념일을 새로이 국가적 명절로 추가했다.

명절 문화를 살펴보면 미공급 시기⁶⁶ 이전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술, 기름, 된장, 간장, 과자, 물엿 등의 식료품을 주민들에게 명절공급⁶⁷으로 배급하였다. 소년단원들에게는 2·16일과 4·15일 사탕, 과자 등의 당과류가 담긴 선물 봉투가 나누어지며 해마다 새 교복을 내주었다. 주민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거나 동물원이나 공원 같은 유원지에 가기도 한다. 특별히 설날(신정)이 되면 도 내 소년단원들의 설 맞이 공연이 열리는데 집단체조나 노래 공연 등을 무대에 펼쳐 보인다. 도 내 군인들과 대학생, 각 공장, 기업소 청년동맹원들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이나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등 국가적 명절을 경축하는 군중 무도회를 열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동원된다.

하지만 1990년대 기아 사태로 인하여 명절 분위기는 아예 사라져 버린 듯 하다. 도 기관들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도 더 이상 명절 공급을 배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던 간식 봉투가 훨씬 양이 줄었고 새 교복은 몇 년째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⁶⁵ 태양절: 김일성이 죽은 후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주체 1년으로 정했으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 절로 하였다.

⁶⁶ 1990년대 기아 사태를 가리켜 북한 주민들은 미공급 시기라고 부른다.

⁶⁷ 명절을 앞두고 국가가주는 품목 전체를 가리켜 주민들은 “명절공급” 이라고 부른다.

3) 대중 문화

지방 도시인 함경북도의 미디어 매체문화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조선 중앙 방송 외 다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또한 전자 공학기술이 발달 하지 못한 북한에서 무선 통신보다는 유선 통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하루 전력 공급이 5시간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텔레비전을 제대로 시청할 수 없다.

하지만 1990년 대 말엽부터 외국산 TV를 집에 두고 북한 정부의 눈을 피해가며 CD 플레이어나 녹화기를 이용하여 외국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함경북도 주민들 속에 중국과 무역하는 외화벌이 기관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외국 영화가 담긴 CD, 녹화 테이프의 밀수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녹화 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도 내에 유입됨에 따라 함경북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도 한국과 중국, 일본과 미국, 심지어 서방세계에 대해서까지 점차 알아가게 되었다. 물론 외국 녹화 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돈 있는 계층들이다. 청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30~40%가 외국 녹화 물을 봤을 것이라는 새터민의 증언도 있다. 또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들, 즉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중국 방송사를 통하여 몰래 외국 영화를 보기도 한다. 새터민 최모씨는 남한 인기 드라마가 중국 연변에서 방영되는 것을 북한에서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함경북도 내에 이러한 밀수된 대중문화들로 인해 어린이들까지도 폭력적인 영화나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 일부 어린 청소년들 속에서는 부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음란물을 보거나 때로는 음란물을 무단 복제하여 배포하는 장사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함경북도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독재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한 식량원조 사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문화선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요약

이상 북한의 문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의 집단주의적 문화나 전통문화는 남한의 쇠퇴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들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남한의 자유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는 자유가 없는 억압되고 폐쇄된 북한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화선교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의 전통문화, 집단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것과 남한의 향락문화나 음란문화를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들어 와 있는 새터민들의 문화에 대한 혼란을 깊이 조사해서 통일 후에 이것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7. 위생보건분야

1) 개요

북한 정부는 광복 후 1947년 초부터 전체 노동자, 사무원과 부양가족들에게 사회주의적 복지 형태인 무상치료제를 도입하였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 정부는 무상치료제에 이어 의사 담당구역제를 실시하였으며 1974년에는 농촌진료소의 병원화를 대대적으로 발전 시켰다. 북한 전체 주민에 대한 무상치료제는 전쟁 중인 1953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정부가 주장하는 무상치료제도는 이미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나마 무상치료제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관료계층 450만 명 정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은 제외된다. 함경북도 경성군이 고향인 새터민 최모씨 또한 몸이 아플 때 주변에 있는 진료소에서 진단만 받는 수준이며 큰 병원은 약이 없고, 또 있다고 해도 병원에서 비싼 값에 약을 팔기 때문에 약을 구입할 수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의약품 부족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절대 부족하며 병원 시설 및 보건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1990년대 후반기 영양실조, 대사질환, 결핵,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⁶⁸

2) 함경북도 지역 위생보건 실태

함경북도에는 북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힘입어 많은 병원들이 건설되었다. 청진시 포항구역 남향동에 위치하고 있는 함경북도 인민병원(의대병원), 신암 구역에 위치한 시 인민병원을 비롯하여 매 구역마다 병원이 있고 농촌들에는 군 마다 군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사업을 활성화 하였다. 또한 동이나 리에는 진료소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함경북도 위생시설은 매우 낙후하고 열악하며 수질오염으로 인해 홍역과 수두가 심각한 실정이다. 1980년대, 청진시로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의 이주가 발생했었는데 이때 당국이 급히 인근 노동자구에 4~5층짜리 아파트를 대거 건설하면서 하

⁶⁸ 남북의료협력재단 북한 의료실태와 남북협력 토론회, 청진시 출신 새터민 주 모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수도를 부실하게 공사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우수망(雨水網)과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를 정화시켜 빠져나가도록 하는 오수망(汚水網)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질이 급격히 오염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트보다 단층집을 더욱 선호하게 됨에 따라, 집들마다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배설물 처리가 힘들어졌고 퇴비를 만드는 작업 때문에 인분이 바람에 날리고 물을 오염시키면서 호흡기 계통과 수인성 질병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진시 자치구 내의 문제는 도 내 곳곳으로 확산되어 기생충병, 간염, 폐결핵은 물론 수두, 성홍열,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에 걸린 주민들이 약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3) 함경북도 병원 현황

함경북도에는 의사와 약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인 청진의학대학,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비롯하여 각 지역, 구역마다 구역병원, 인민병원, 진료소 규모의 병원들이 있다. 하지만 근처에 병원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병원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병원 의사들에게조차 국가가 배급을 공급하지 않아 의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보다는 장마당으로 나가는 형편이다. 도내 병원들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은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한 것은 전기가 없어 의료기구들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의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미약한 병원 시설들과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중앙 보건 성이나 도 보건 국 일군들의 비리 행위가 극성이다. 유엔이나 남한 정부가 의료 지원 약품들을 보내면 해당 지역 병원들에 전달 되기도 전에 중앙에서부터 도, 시, 군 간부들까지 횡령하여 장마당으로 빼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병원에 약이 어느 정도 도착하였다고 하여도 병원 일군들 속에서의 빼돌리기로 인하여 정작 병원에서 앓고 있는 환자는 필요한 약을 공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4) 요약

북한의 의료제도는 공산주의 형식으로 거의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제 병원에 약이 없다는 것이다. 약이 들어오면 무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금만 아파도 와서 가져 가곤 하였다. 하지만 도내 의약 재료와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제도만 남아 있을 뿐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함경북도는 의료지원이 긴급한 상황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생 의료 인프라가 파괴된 상황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제어 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 파탄과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어린이들의 발육부진, 영양실조,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져 전염성 질환을 가져온다. 경기침체는 식수 및 전력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공중보건 및 의료체계 악화, 약품생산 저하와 냉동유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계 질환, 급성호흡기 질환, 결핵, 기타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전염병이나 피부병, 기생충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평양을 통하여 국제 의료협력기구 등에서 의료기구들과 치료약을 원조해주어도 평양과 주변에만 국한되어 함경북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⁶⁹

함경북도 내 주민들의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위생 보건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8. 교육분야

1) 개요

북한은“전면적으로 발달한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 육성”을 교육이념으로 세우고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북한 교육의 목적을 헌법 제43조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강건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을 하는데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서 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주체의 확립,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등을 제시한다.

북한의 교육과정을 본다면 유치원 단계에서 1년(학년 전 교육),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과정까지 총합하여 11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과정인 고등전문학교, 대학, 박사원(대학원)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1년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1년간 의무교육 방침을 결정하였고, 그 해 9월부터 1년 간 학교 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75년 9월부터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1970년대에 11년제 무료 의무교육을 표방하였지만 이미 상당부분이 퇴색되었으며 1990년대 경제침체와 대 기근으로 하여 국가로부터의 교육물품 공급은 현저히 줄었다.

⁶⁹ 본 내용은 조선족 김모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 함경북도의 교육현황

(1) 소학교와 중학교

청진시를 중심으로 한 함경북도 교육은 북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북한 교육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11년제 의무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며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1990년대 아사 사태를 겪으면서 함경북도에서의 교육 수준과 현황은 시골까지 뻗칠 여력이 없어 도시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⁷⁰ 하지만 그 운영비는 재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교 건물의 노후라든가 교육물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결국 학부모들의 주머니로부터 충당하는 셈이다.⁷¹

그나마 도시에서는 돈 있는 학부모들이 많아 이렇게라도 학교 교육이 운영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다. 새터민 A씨는 식량 부족으로 교원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부터는 학생수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학교에 나가 공부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농촌지역 부모들의 생각이다. 학생들 또한 배고픈 배를 끌어안고 학교에 가봤자 배고픔 때문에 공부에 집중되지도 않아 부모를 따라 장사를 하거나 역전에서 꽃제비로 전락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2) 전문학교 및 대학

함경북도 대학, 전문학교들은 다른 도와 달리 금속 채굴공업, 야금 공업기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함경북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 광물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특성과 관련된다. 함경북도 내의 전문학교로는 청진 상업전문학교(청진), 청진 자동차 전문학교(청진), 고등 경제전문학교(청진), 철도전문학교(청진), 경성의학전문학교(청진), 청진해양전문학교(청진), 부령건재공업전문학교(부령), 화대공업전문학교(화대), 회령경공업전문학교(회령), 어랑군농기계전문학교(어랑), 연사농림전문학교(연사), 온성광업전문학교(온성), 화성화학전문학교(명간), 은덕석탄전문학교(경흥), 새별농업전문학교(경원), 명천석탄기술전문학교(명천) 등이 있다.

함경북도에 건립된 대학으로는 청진 광산금속대학, 청진의학대학, 청진오증합제1사범대학, 청진제2사범대학, 청진농업대학, 포항공업대학, 김책금속대학, 성진공업대

⁷⁰ 본 내용은 함경북도에 가서 공훈사역을 하시는 조선족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⁷¹ 참조: 한국교육 개발원-북한 교육정보센터

학, 청진공산대학, 무산공업대학, 고건원공업대학, 청진교양원 양성소, 회령김정숙교원대학, 라진해운대학, 김책공군대학, 은덕공업대학, 성진대화물공업대학, 라남공업대학, 등이 있다. 도 내 대학의 대부분은 공업기지가 많아 이공계 대학들이 주류를 이루며 대학교원과 중학교, 인민학교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범대학들, 교원대학들이 많다.

함경북도에서의 대학교육은 철저히 북한대학교육 이념을 토대로 진행되며 정치사상 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지식만을 소유한 기술자가 아니라 혁명화 노동계급화 된 쓸모 있는 혁명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기간, 학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시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노력 동원에 참여하게 된다. 봄, 가을 철에는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라는 노동당 정책으로, 대학생들은 30~70일간 명간군, 명천군, 경성군, 등 도내 지방 농촌들에 노력 지원을 나가게 된다. 이외에도 이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함경북도 당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청진 양어장 건설, 수성천 발전소 건설, 염소 목장건설 등에 동원되기도 한다.

2001년부터 북한 교육성의 지시에 따라 도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조정되었으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의학 대학을 비롯한 몇 개의 대학만이 5년제로 남겨졌다고 한다. 또한 단과대학제도를 없애고 전문학교로 조정하였으며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한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다.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나진해운대학과 청진광산금속 대학이 중앙대학으로 지정되었다.⁷²

도 내 대학생들은 외국문화나 외국소식에 비교적 관심이 많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중국무협영화 등 외국영상물을 접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성경에 관련된 영화를 본 20여명의 청진광산금속대학과 청진의학대학 학생들이 도 보위부에 끌려가 취조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부 대학생들 속에서는 장사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에 따르면 문학의 최고 전당이라는 대학의 특성상 장사, 도박, 음란물 유포와 같은 행위들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는데 식량위기로 인해 대학생들이 장사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3) 정보화 교육

함경북도 교육기관에 의한 컴퓨터 보급은 아직까지도 저조한 수준에 불과 하다. 실제 한국의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컴퓨터를 처음 다루어 본다는 대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새



출처: <http://videojksblog.com/>

〈그림 Ⅲ-5〉 컴퓨터 교육을 받는 북한 학생들

⁷² 본 내용은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한 탈북민 주모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터민 중 북한에서 컴퓨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7%, 인터넷(인터넷)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⁷³ 실제 청진광산 금속 대학을 졸업한 A씨의 증언에 의하면 2004년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를 다루어 봤던 날수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부터 청진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는 중앙 교육성의 방침에 따라 ‘구역별 제1중학교’제를 실시하여 매 구역마다⁷⁴ 제1중학교를 설립하고 대대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전문학교들에도 컴퓨터 관련학과들이 생겨났으며, 청진시에 위치한 청진광산금속대학에서는 정보처리 공학과가 정보처리 공학부로 승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도 보위부나 안전부, 당 및 인민행정기관, 사법기관들에서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대학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최근 함경북도 청진시뿐만 아니라 도 전반 지역에서 컴퓨터 교육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청진시 신암구역과 포항구역에 청진 컴퓨터센터를 설립하여 도 전반에 대한 정보화 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된 일반 중학교 학생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함경북도의 식량사정과 경제악화를 고려해 볼 때 컴퓨터 교육과 보급은 극히 상위 층 학생들에게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제1중학교와 대학을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더라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한다.⁷⁵

3) 요약

현재 함경북도 지역의 교육실태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교육에 대한 물자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에서는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물건들을 착취하기도 한다. 함경북도 지역 출신 새터민 주모 씨는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11년제 의무교육은 사실상 노예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소학교(인민학교), 중학교(고등중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당국이 학생들로부터 학교운영에 필요한 물자들, 칠판 지우개, 삼각자, 청소도구 등을 강제수거 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난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또한 도내 전반적 지역에서 중학교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도 함경북도

⁷³ 아이뉴스, “연중기획: 따뜻한 디지털 세상 새 터민, 그들도 IT강국의 코리안이다”

⁷⁴ 청진시에는 라남구역, 송평구역, 수남구역, 부윤구역, 포항구역, 청암구역, 신암구역 이렇게 7개의 구역이 있다.

⁷⁵ 본 내용은 청진광산금속 대학을 졸업한 A 탈북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교육이 직면한 위기다. 원인은 도 내, 1990년 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0 수준에 이르는 지역들이 많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3~4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2009년 올해 중학교입학 나이가 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입학생들이 없으니 학교는 폐교되고 소수의 입학생들은 타 지역의 학교로 전학 간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도내 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도내 학생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인 것은 도내 우상화 교육이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2009년 초 회령시에 있는 김기송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조선인민군입대 탄원을 기피하는 사태가 벌어져 졸업생 전체가 농촌으로 강제 집단배치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⁷⁶ 이렇듯 정부의 우상화 정책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다기 보다는 교과서의 한 부분으로만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본 조사팀이 연결에 있는 대학교에서 인터뷰 한 결과 공산당 이념아래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단지 그 수업을 하나의 암기과목으로 치부하며 점수를 위해 공부한다는 증언을 듣기도 하였다.

9. 종교분야

1) 개요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반 종교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7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였고 1980년 초에 들어서면서 종교활동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광복 후부터 약 30년 간 북한 정권 내에서는 종교 말살정책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서구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대외적인 목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목적으로 종교 행위들을 실시하였다. 1992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하고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의 통제하에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선전용 종교행사만을 허용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종교법 흐름을 살펴보면 외부의 여러 종교 단체들과 연계를 지속하며 대규모 해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⁷⁶ Daily NK 뉴스(검색 어: 농촌 배치 통보받은 北 졸업생... "만세?" , 검색일: 2009년 7월 31일)

2) 함경북도 주민들의 종교 의식 및 생활양식

도내 주민들은 북한정부의 잘못된 종교교육으로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투를 목적으로 한 침략 행위이며 사람들의 창조적 생각을 해하고 혁명 투쟁을 파괴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속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도 내 주민들 속에서는 점을 본다거나 굿을 하는 등의 미신 행위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미신행위의 원인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활고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불안함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1990년대 말부터는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 불안이 가중 되면서 곳곳에 점집이 더욱 성행하였고 주민들은 점쟁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주부들까지 가짜 점쟁이로 나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함경북도 출신의 새터민 최모씨와 김모씨에 의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모씨 같은 경우는 탈북에 관한 정보를 점쟁이로부터 얻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함경북도의 도민 대부분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나 점과 같은 토속 신앙 행위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발간되는 점술 책들까지 유입되어 미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새터민 이00씨 또한 점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불교, 유교의 문화적 배경으로 봄철 한식(4·5일)이나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의 묘를 찾아 삼배를 드리고 제상에 놓았던 음식을 조상과 한자리에서 먹는 의미로 묘 근처에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다. 부모나, 친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날을 기일로 정하고 기일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

3) 요약

북한 정부에서 선전하는 북한의 종교법은 허위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를 드러내놓고 탄압하는 대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허위의 종교 기구를 만들어 놓고 경제지원을 얻는 통로로 쓰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의 종교의식은 김일성 우상화 교육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 밖에 전통적인 유교 풍습과 점과 같은 토속 신앙도 주민들의 종교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함경북도 주민들 안에서는 우상화 교육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의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미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무당이나 굿 같은 행위는 좀처럼 드러내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와 같은 샤머니즘적 행위를 많이 표방하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무너지가는 김일성 주의 대신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문화와 마약문화가 대신하고 있다. 중국 밀무역을 통해 엄청난 양의 비디오, CD 음란물들이 들어

고 있는 실태이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런 음란물이나 마약 밀수행위보다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 행위가 들어오는 것을 더욱 경계한다고 한다. 이유는 기독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뭉쳐서 사회주의 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⁷⁷

10. 기독교 상황

1) 개요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적대적 입장을 취했으며 광복 후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정에서도 교회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6·25 전쟁 3년 동안 북한 정부는 6·25 전쟁은 남한과의 전쟁이라기보다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이며 여기서 기독교가 미국의 침략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6·25전쟁이 북한당국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반대, 탄압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반 기독교적 사회풍조는 사상의식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반종교 선전으로 이어졌고, 북한 당국은 소책자까지 만들어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을 선전하였다. 1959년경에는 이러한 북한의 사회 정치적 분위기로 공식적인 교회 활동이 거의 사라졌었다. 195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 사회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신앙생활 방식을 모색, 실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비공개적 신앙생활 방식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공개적인 가정교회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친 사회주의적 신앙 유형은 기독교도연맹이라는 공적인 제도하에서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정부는 대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기독교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인 선전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대내적으로는 형법 및 조선 노동당 규약 등의 규범으로 주민들을 기독교와 격리시키고 기독교에 대항하여 새로운 종교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2) 도내 기독교 현황(함경북도의 지하교회활동)

북한은 지금도 아랍의 반 기독교 이슬람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기독교 탄압 국가의 지위를⁷⁸ 지키고 있다. 본 조사팀은 조-중 접경지역 사역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경북도 내에도

⁷⁷ 본 내용은 조선족 김모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⁷⁸ “오픈도어스선교회 국가별 기독교 탄압실태 보고서(2009 세계감시목록)”

분명히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다는 이유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지하실에 숨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함경북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하교회가 설립되게 된 시점은 1990년 대 말 기아사태로 인해 도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탈출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된 말씀을 깨닫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지하교회가 된 것이다. 조-중 접경지역에는 북한을 위해 많은 목회자 분들이 사역하고 있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조선족목회자나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탈북민들은 목회자 분들을 만나면 체계적인 성경교육을 받게 되며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으로 인도되기도 한다.⁷⁹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형제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도내 지하교회 성도들은 보위부나 보안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모임에 모이는 사람을 10명 정도로 제한하며 모임 외의 사람들은 서로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낸다. 이런 방식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의 모임이 함경북도 내 시와 군의 여러 곳에서 주일성소를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북한의 회복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정작 한국의 성도들을 위협에 처한 그들을 위해 제대로 중보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갈지, 언제 사형장에서 총살될지, 혹은 교수형을 당해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지만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이 나라 남한과 북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⁸⁰

3) 도내 주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함경북도 주민들도 오랜 시간 동안의 이상화 세뇌 교육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었다 할지라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선전하는 반 기독교 선전만 들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기독교가 악한 짓을 하는 종교집단인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식량위기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 왔던 도내 탈북민들도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 종교는 사람의 의식을 쪼먹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 정부가 미국 안식교(이단교단)의 허시몬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인 청년이 자기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주어 먹었다는 죄명으로 이마에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겼다는

⁷⁹ 본 내용은 모퉁이돌 선교회 이모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⁸⁰ 참조: 평양 주님의 교회(검색어: 북한 지하교회소식)

등과 같이 반 기독교 선전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민들은 선교사님들의 섬김 사역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함경북도 내 지하교회 교인들이 포교 활동이 가능한 것을 보면 도내 많은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냉담한 입장을 유지하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4) 요약

함경북도에서 기독교 교회는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외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일성 우상화 체제가 강화되고 반 기독교적 선전으로 기독교는 점차 빛을 잃고 사라져 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탈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수백 만 명이 굶어 죽는 비참한 아사 사태 속에서 함경북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정부로부터 소외된 함경북도는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 정도로 메마르고 버려진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의 불씨를 쥐어 주셨다. 외형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민족의 부흥을 중보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IV. 함경북도 지역의 현재 이슈들

1. 함경북도, '80년 만의 대흉년 위기'⁸¹

최근 함경북도의 농사 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파종 시기인 5월에 저온 날씨가 시작 된 것이 흉작의 큰 타격을 주었다. 문제를 감지한 농민들이 6월에 홍남비료를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7월까지 이상 저온현상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농지에는 옥수수 벌레가 기승을 부리기까지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7월말부터 8월말에는 가뭄현상이 나타나 이삭이 안 나오는 옥수수가 속출하였다. 그래서 현재 개인 소토지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알곡 소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농사를 아예 포기하고 도토리를 주우러 다니고 있다.

2. 청진 여행자 집결소, 인권침해 심각⁸²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추평동에 위치한 여행자 집결소는 함경북도를 지나는 기차나 화물차량을 이용하다가 단속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여기에 집결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어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거나 장사하러 왔다가 붙잡힌 경우다.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고는 미비한 데 이 곳에 있으면서 당하는 취급은 범죄자와 같은 수준이다. 집결소 규정만 조금 어겨도 남자들은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 허리띠나 몽둥이로 구타한다. 그리고 여자는 잡다한 일부터 구타 및 모욕감을 주는 말, 심지어 성관계까지 강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결소 내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력행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상부에 신소가 올라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⁸¹ 좋은 벗 사이트 www.goodfriends.or.kr 2009.10.20일자 신문기사내용 참조

⁸² 좋은 벗 사이트 www.goodfriends.or.kr 2009.10.20일자 신문기사내용 참조

V. 함경북도 지역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본 조사팀은 이번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조-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명의 사역자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 특히 함경북도 지역에 이미 많은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현재 함경북도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도 없고 대부분의 사역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실정이라 복음화 정도를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함경북도에 직접 들어가는 A 사역자⁸³와 방문자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지하교회의 존재가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A 사역자는 중국에서 1979 년도에 개혁개방으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자 수면 위로 수많은 가정교회가 드러난 것처럼 북한도 폐쇄적인 사회가 열리면 수많은 지하교회가 이미 누룩과도같이 퍼져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방문자 사역⁸⁴을 통해 함경북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잠시 중국으로 넘어 왔던 탈북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분명 이들을 통해 함경북도 그리고 북한 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확신한다. 또한 본 조사팀은 인터넷 조사를 하는 가운데 북한에 이미 많은 지하교회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지하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함경북도 내에 기독교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 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하교회가 대부분 가정교회 중심이고 북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반하는 세뇌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 청진시에 살던 새터민 A씨 인터뷰 결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 TV에서 1926년도에 활동하던 미국 안식교 허시몬 선교사가 끔찍하게 그려진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서 북한에 있을 당시 기독교를 무조건 거부 했었다고 증언 하였다. 이와 같이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 시, 먼저 교회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⁸³ 연길시에 거주하며 함경동에 물자 지원하시는 분으로 특히, 교아원에 물자를 많이 지원하신다.

⁸⁴ 북한에 잠시 넘어 온 사람들을 복음화시켜 다시 돌려 보내는 사역을 말한다.

2. 함경북도 지역 선교의 방해요소

함경북도 복음화의 방해요소는 북한 전체 지역의 복음화 방해요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복음화 방해요소는 크게 북한 정부의 체제와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구체화하여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북한의 우상독재 체제

북한 정부의 주체사상 및 1인 독재체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철저히 폐쇄된 채 김일성 우상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게 한다. 따라서 김일성 우상에 반하는 기독교 교리는 탄압과 배격을 당하고 있다.

2) 북한의 폐쇄 정책

폐쇄정책은 북한 정부가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우려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 하고 있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장하고 있다.

3) 남한의 거짓 후원 활동 사이트

본 조사팀은 연길 지역 사역자의 증언을 통하여 인터넷 상으로 거짓 후원 계좌를 올려 돈을 돌려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 사역이 대부분 수면 아래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고 여러 북한 사역단체들의 통합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거짓 후원 사이트가 남한의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물질적 후원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남한교회의 무관심

북한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부족한 오늘날 남한교회의 현실 또한 북한 복음화의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반 세기 이상의 분단과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입국한 새터민들을 통하여 일부 교계와 NGO단체들은 이미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우리 남한 교회의 성도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있지 않는데 있다. 남한교회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3. 함경북도 지역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방해요소들의 변화

본 조사팀은 리서치 하는 가운데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북한 복음화의 방해요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일하고 계셨다.

(1) 주체사상을 통한 복음화의 접촉점

우리가 북한 선교의 가장 큰 방해요소라고 생각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본 조사팀은 방문자 사역 및 단동 L 사역자와 인터뷰를 통해 그것을 확신 할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 넘어 온 탈북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방금 들은 사상은 이미 많이 들어 왔던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분을 경배하고 그 분께 순종해야 하는 개념이 낯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의 마음 문이 잘 열리고 김일성이 거짓임을 인정하게 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고 방문자 사역하는 사역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생활총화, 사상투쟁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과 말씀에 대한 흡수력도 빠르다는 사역자들의 증언은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폐쇄정책을 통한 전도의 기회

우리는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핵실험으로 인해 비롯된 강경 정책과 외부의 물자 공급중단이 북한 사역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조사팀이 조-중 접경지역에 가서 본 상황은 이와는 달랐다. 본 조사팀이 만난 연변 지역 사역자중 한 분은 북한의 폐쇄정책 속에서 진행된 핵 실험이 국제사회의 식량 및 물자 지원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자와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경북도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오히려 끊임 없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조-중 접경지역 사역자에게 희망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2) 성공사례

(1) 공홀사역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북한 내에서의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나오는 탈북민들과 북한 내에 굶고 있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복음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이나 의료봉사 같은 선교 도구를 이용해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역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조사팀이 확인한 결과 조-중 접경 지역에서는 한국의 지원이나 자체적 모금을 통하여 밀가루, 의류 등의 물품들을 함경북도 내 고아원으로 보내는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조선족 분이 북한 내에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아래 구호 물품을 가지고 함경북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본 조사팀이 방문한 훈춘에 위치한 A 학교에서는 함경북도 나진시에 3개의 진료소, 빵 공장, 고아원, 그리고 탁아소를 설립 운영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 요녕성 단둥시의 한 병원의 북한 내에 의료품을 전달하는 사역을 통하여 의료품들이 함경북도 내에도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는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전도는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공홀사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방문자사역

함경북도의 폐쇄적 사회 안에서 물 밑으로 말씀 양육도 이루어 지고 있다. 방문자 사역이라고 불리는 이 사역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탈북)으로 잠시 중국을 방문하여 식량을 얻어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형태로 진행된다. 실제적으로 이들에 의해 함경북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하여 중국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 가정과 친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위주로 전도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

4. 함경북도 지역 선교전략 제언

다음의 선교전략 제언은 북한 선교 관련 실무자들과 함경북도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함경북도 복음화 전략과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북한 복음화 전략을 다루었다. 본 보고서 2장 함경북도 일반현황의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함경북도와 북한의 기독교 상황과 이에 따른 복음화 전략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 체제 변

화에 따른 북한 복음화의 전략과 함께 제언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1) 함경북도 복음화 전략 기본방향 제시

함경북도 복음화의 기존 성공전략을 본다면 북한을 탈출하여 나온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홀 사역 및 복음 전도이다. 선교사들은 탈북민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보다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족같이 생활한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감이 생겨 충돌 할 수도 있다. 배고픈 이들을 충분히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을 섬긴 이후에 조금씩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한테 잘해 주는 이유와 한국이 잘 사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하며 이 때 하나님에 대해,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리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탈북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다음은 본 조사팀이 조-중 접경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와 인터뷰 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겨. 그 사람들이 평생 접해보지 못했던 섬김을 주지. 그들이 하루가 지나면 말해.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난생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난 이해가 안됩니다.’ 속으로 ‘혹시 날 팔아먹으려고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니까?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주십시오.’ 그러지. 그럼 복음을 전해. 어떤 자매는 그 얘기를 들으면 펄쩍 울면서 ‘그 예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다’. 그렇게 단숨에 복음이 전해지지.”-선교사님 인터뷰 中

본 조사팀이 생각하는 함경북도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 점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특히 함경북도는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많은 탈북민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탈북한 그들을 입히고 마시게 하며⁸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린 후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곳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진리란 너무나도 값진 것으로 그들 마음에 자유를 주는 복음이란 너무나도 귀한 기쁨의 소식인 것이다.

북한선교는 일반 해외선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⁸⁵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25: 35~36)

북한선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단 북한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한의 기독교인들 보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선교에 더 유리함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남한에 있는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 두 가지 영역에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조선족이나 탈북민들 혹은 남한의 기독교 새터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 또 다른 전략은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중 접경 사역자들이 북한에 사역리를 보내는 사역에 남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접 밟을 수 없는 땅이지만 북한 땅의 회복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 하실 것이다.

2)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전략 제언

본 조사팀은 현재 국제 정세의 변화와 북한 사역자들의 조연과 문헌을 참조하여 북한정권의 체제변화에 따른 단계별 복음화 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1) Case 1: 1국가 2체제(제한적인 왕래)

1국가 2체제 방식은 먼저 가장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통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이 되면 북한의 문이 한번에 바로 열린다고 하기 보다 제한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완전 폐쇄된 상황에서부터 점차 조금씩 문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 단계별 선교전략을 세우고 선교 주체에 따른 개별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첫 번째 단계

1국가 2체제의 첫 단계로 문이 열리지 않은 현재 상태, 즉 폐쇄상태에서 1국가 2체제에 대비하여 우선적인 전략은 북한 내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많은 북한 사역 단체들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중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이 문이 점차 열릴 것을 예상하여 조선족을 복음화 시키고 잠시 동안 방문 또는 탈북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들을 복음화 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복음을 접한 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 지하교회를 세우고 포교활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

또한 한국교회에서도 미래 통일을 대비하여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을 북한 복음화를 위한 지도자로 양성하는 사역을 진행한다. 1국가 2체제에 대비하여 물질적 후원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조사팀은 조-중 접경지역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함경북도 지역에 대한 시급한 물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것

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교회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단체와의 협력과 모금활동을 진행하여 꾸준히 후원함으로써 북한 선교에 쓰일 재정을 공급하며 협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 관련 세미나, 학회, 등에 참여하여 북한 상황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하며 함경북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지하교회들을 더 많이 세우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선족 분들과의 협력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 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성경말씀 소책자, 전도지,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 간증문 같은 것들을 함경북도 내부에 들여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족은 폐쇄적인 국경 상황에서도 북한에 친척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비교적 쉽고 안전하다. 이는 북한 정부의 장기적인 폐쇄정책이 지속될 경우 조선족을 통한 북한 선교전략의 기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폐쇄되었던 문이 점차적으로 열리는 때로 먼저 조-중 접경 지역과 한국에 있는 준비된 지도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 북한에 먼저 들어간 이들과 한국 및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지의 필요를 충당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교회 건물을 건립하는 것인데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미 북한 내에 있는 김일성 연구실과 같은 건물들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⁸⁶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모든 재정적, 물질적 지원은 되도록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③ 세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북한의 문이 완전히 열려 자유로운 왕래가 더 활발해질 때를 대비한 선교전략이다. 이 때를 위한 복음화 전략의 기본방향은 그 땅의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는 것과 주민들을 향한 대대적인 전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크리스천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 거점을 확보 하는 것은 그 땅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빛으로 상주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들어가 주민들의 부족한 물질적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을 전하도록 한다. 크리스천 리더가 각 분야의 리더로 활동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계획 및 프로젝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되어 짜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성경적 북한 재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생활, 교육, 의료 분야

⁸⁶ 단동 L 선교사님과 인터뷰에서 도출하였다.

별로 준비된 리더들이 들어 가는 것이 자유왕래 시대의 기본적인 선교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향한 대대적인 전도 사역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깨닫고 복음을 받아 들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켜 반감을 살 수 있으며 북한 복음화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주체 사상에 얽매어 살아왔으며 김일성 우상화 교육에 세뇌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묻기 전까지 리더들은 “무조건 사랑하되 냉정하고 무조건 돕되 은행처럼 하라”⁸⁷는 원칙을 지켜 섬김 사역에만 충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리더들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장기 사역을 위한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역들이 단계 별로 완성되며 북한과 남한의 교회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의 간증이 오가면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이다.

(2) Case 2: 1국가 1체제(자유왕래)

1국가 1체제 상황은 북한 정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반도 전체지역에서의 선거 이행을 허락하며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수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독재와 폐쇄 정책을 버리고 급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서는 앞에서 보았던 활발한 자유왕래시기를 위한 선교전략과 비슷하지만 1국가 1체제 상황에서는 각 분야별로 단체가 들어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분야를 살펴보면 함경북도 지역에는 광산이 많고 제철 공업이 발달 하였으므로 야금공업 기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교회는 기업인들에게 해당 지역에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통한 기업 홍보가 중요함을 설득시켜 기업인들의 사업과 교회 사역의 연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별로 선교사들이 파송 되어 기업인들과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단체, 특히 부모를 잃고 집을 잃은 꽃 제비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아동전문사회복지시설들이 필요하다.

교육분야에서는 기독교재단의 학교들이 많이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치고 반 세기 이상의 분단으로 인한 남과 북의

⁸⁷ 기독교북한인연합회, www.nkca.net을 참고하였다.

이질 된 문화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나가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적인 전통문화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서양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 예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활부분에서는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북한의 각 지방마다 식량공급과 병원진료소의 활성화, 도시 상수도 시설의 회복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급진적인 개혁이 일어난다면 전체적인 분야를 새롭게 건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시설계와 식량문제, 기업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을 구상하여야 한다.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는 성경적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3) Case 3: 급진적인 소요사태 발생

급진적 소요사태란 북한내부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 김정일 정권의 몰락과 동시에 지방 군부세력의 또 다른 반란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데, 새터민 B씨는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 9군단이 쿠데타 정부를 반대하여 무력충돌을 일으킬 상황도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1990년 대 중엽, 당시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 6군단의 반란 음모가 있었다는 새터민 B씨의 증언을 볼 때,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함경북도 지역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주민들의 생명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혼란 사태는 유엔군이나 중국 해방군, 러시아 군이 개입하기까지 1~3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함경북도 지역에는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기대 할 수 있는 희망은 현존하고 있는 지하교인들이다. 교인들은 사회혼란 속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부족한 물질들을 나누면서 복음전도사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본 조사팀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지하교회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그들에 대한 영적 훈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하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히 서고 물질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급진적 소요 속에서도 모든 시련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지하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고 확신한다. 한국과 세계 전체 기독교인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평화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VI. 나가는 말

본 조사팀은 함경북도 지역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힘써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다.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정말 닫혀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마치 잠자고 있는 나라 같지만 하나님께선 막혀 있는 38선이 아닌 조·중 접경 지역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분단 이전과 이후 한번도 쉬지 않으시고 항상 그 땅을 주목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다.

함경북도 지역은 조선 시대부터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 유배되는 곳이었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북한 내부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이기에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며 온전한 손길을 그 곳 가운데 미치고 계셨다. 배고파 도강한 그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탈북민들에게 함경북도뿐만 아니라 북한 복음화의 소명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목숨을 걸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금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직접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지만 그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본 조사팀은 함경북도 지역의 경제현황과 생활수준, 교육형편 등을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의 설립과 실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통하여 포스트 김정일 시대, 통일 후 북한 복음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역 사람들의 특징과 결부하여 합당한 선교 전략을 세워 보았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본 조사팀의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현황 및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연구는 기존에 이룩한 성공적인 북한 선교 전략에 기초하여 직접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함경북도를 넘어 지속적인 북한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복음화 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4)

『대 백과사전 1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고장이름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3)

데이브, 수스, 『무너지는 장벽』, (홍성사, 2009)

기독교 북한인 연합회, www.nkca.net

두리 하나 선교회, www.durihana.com

위키 백과사전, www.ko.wikipedia.kr

조선 일보 북한, www.nkchosun.com

좋은 벗들, www.goodfriends.or.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부 교육원, www.uniedu.go.kr

통일 학교, www.uniedu.go.kr